

연변팀, 축구협회컵 조기 마감

- 수적 우세 불구 3부 팀에 0대1 충격패

‘반짝 스타’는 없었다. 5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상해라동력립항축구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2026 중국축구협회컵 제3라운드 경기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중국축구 엘리트리그 팀인 상해새경달팀(이하 ‘상해팀’)에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경기 초반에 퇴장 선수가 발생해 10명이 된 3부 리그 팀을 상대로 단 한골도 넣지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다.

한편, 지난 시즌 축구협회컵에서 키퍼 구가호가 신들린 선방으로 일약 스타 키퍼로 떠오른 바 있어 올해의 축구협회컵도 후보 선수들에게는 자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확실히 이기형 감독은 이날 선방에 신인들을 대거 출전시키며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선발 명단을 보아도 호재점, 차택평, 최현우로 수비선을 구성하고 김홍도, 양이해, 리점룡, 리세빈으로 중원을 구축했으며 왕자호, 리석민, 종현우를 전방에 배치했다. 키퍼 장갑은 왕호승이 썼다.

경기 시작전부터 ‘장자호축구팬협회’를 비롯한 원정 팬들이 시원한 응원

소리로 사기를 진작시킨 가운데 연변팀은 전진 패스를 통한 공격 전개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짧은 탐색전 뒤 라인을 올린 연변팀의 반코트 경기가 상대를 압박하다 보니 상해팀은 밀집 수비로 대응했다. 상해팀은 선수비, 후역습을 꾀하는 듯했다.

상대 진영으로 밀고 들어가며 빈틈을 노리려는 연변팀의 흐름이 이어졌으나 절대적인 기회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분경에 중원 근처까지 나와있던 상해팀의 키퍼가 역습을 가동한 연변팀의 공격을 끊으며 왕자호를 향해 과격한 반칙을 가했다.

부상 위험성은 물론 1대1 찬스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나온 반칙이었던지라 주심은 주저없이 레드카드를 꺼내들며 경고를 날렸고 이로써 상해팀은 나머지 70여분을 한명이 적은 채로 뛰게 되었다.

상해팀은 후보 키퍼로 수비수를 교체하며 인원 조정에 나섰고 수적 우위를 점한 뒤 연변팀은 세트피스를 포함한 밀물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우세라면 득점이 터질 일만 남았겠다 싶던 40분경, 도리어 상해팀이 반격을 성공시켰다. 왼쪽 측면을 파고든 상해팀 왕자호의 크로스를

화소란이 헤딩으로 마무리하며 연변팀 골망을 선제적으로 흔들었다.

이 슈팅은 전반전에 나온 상해팀의 첫 슈팅이었고 상해팀은 첫 슈팅을 득점으로 연결했다. 반면 연변팀은 슈팅 4회에 유효 슈팅이 1차였으나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며 전반전을 0대1로 마무리했다.

두 팀 모두 선수 교체가 없어 후반전에 돌입했다. 과격한 파울로 한명이 퇴장당한 상해팀의 거친 플레이는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에도 누그러지지 않으며 두 팀간의 몸싸움이 거셌다.

상해팀이 먼저 동시에 두장의 교체카드를 꺼내들며 지키려는 메시지를 던졌고 이에 56분경 연변팀도 종현우와 김홍도를 빼고 허문광과 손석봉을 투입하며 분위기 쇄신을 나섰다.

교체로 들어간 허문광이 2분 만에 활약을 선보였다. 왼쪽 측면에서 날린 먼거리 슈팅이 골문 윗쪽을 명중했다. 키퍼가 쳐내긴 했으나 충분히 위협적인 유효 슈팅이었다.

10분도 안되어 63분경 연변팀은 최현우 대신 정지유를 투입하며 부단히 전술 조정을 시도했다.

70분이 되도록 풀이 터지지 않자 연변팀의 조급함이 경기 템포를 성급하게 몰아가며 오히려 패스 실수로

이어졌고 절대적인 찬스를 만들기 위한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했다.

반면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전진 라인을 높게 유지한 연변팀을 상대로 상해팀은 밀집 수비와 함께 역습을 틈타 연변팀의 뒤공간을 넓혀보려 했다.

이런 대처 상태는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88분경 이기형 감독은 마지막 공격력을 보강하기 위한 승부를 걸었다. 리세빈을 빼고 황진비를 교체하며 이 경기를 내줄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추가 시간 5분까지 더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조급했던 연변팀은 그렇다 할 기회 창출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허무하게 끝냈다.

마지막 한방은 끝내 없었고 70여분간 수적 우세를 유지하고도 득점에 실패한 연변팀은 경기를 내주고 체면도 구겼다.

또한 경기 규정에 따라 갑급리그가 참가하는 제3라운드 경기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지며 단판 승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연변팀은 축구협회컵을 1라운드 만에 조기 마감했다.

이제는 축구협회컵 결과를 뒤로하고 남은 리그 일정에 집중할 때가 되었다.

/ 김기혜기자

《인민일보》 해외판이 주목한 연변 축구의 열기



5월 14일, 《인민일보》 해외판 12면에 〈경기도 보고 고향 구경도 하고〉(看比赛, 逛逛家乡)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자술 형식으로 연변축구팬협의회 회장 고원철의 이야기가 담겼다.

고향의 정취 복돋는다

연변에서 축구 이야기를 꺼내면 많은 로축구팬들은 하나같이 할 말이 한 가득이다. 나는 올해 65세로 한 체인호텔을 운영하는 경영인이자 축구팬이며 연변축구팬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우리에게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일상 그 자체에 가깝다.

연변주내 8개 현(시)이 번갈아 가며 홈과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 팬들은 70~80킬로미터 거리 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가까이 팀을 따라 움직인다. 다들 오전에는 경기를 보고 오후에는 시내를 거닐며 저녁이면 랭방과 양꼬치를 즐기는 식이다. 거리에서 상모춤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공연이라도 마주하면 결심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 경기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지역의 음식과 문화, 장사를 하나로 엮어내는 셈이다. 외지에서 온 팬들이 호텔에 묵을 때면 프런트에서 일정을 물어본 뒤 열에 아홉은 어느 집 랭방이 제일 맛있는지, 어느 거리가 야시장을 즐기기에 좋은지 꼭 물어본다.

연변은 중국에서 일찍 축구 운동이 시작된 지역중 하나로 그라운드 위에서 이어져온 전통이 백년을 넘긴다. 프로리그가 막 시작되던 초창기에는 경기장이 빈자리 없이 꽉 차서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이 경기장 옆 산비탈의 소나무 우에 올라가 경기를 보곤 했다. 그 광경을 지금 떠올려도 생생하다. 합성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무의 사람들도 함께 목청껏 소리쳤다. 연변사람들은 축구를 사랑해서 남녀로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몇마디 정도는 알고 있다.

더욱 기쁜 것은 젊은이들이 다시 축구에 매료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변 리그’는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선수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들이 경기장을 누비며 뜨거운 응원 함성 속에서 명예심을 느끼면서 교정축구도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축구는 더 이상 관중석의 불거리로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운동하고 친구를 사귀고 고향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

최근 몇년 사이 민간 주최 대회가 늘어나면서 연변 축구는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프로리그외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연변주 현(시) 축구리그인 ‘연변리그’를 구축했으며 올해 5월 하순에는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도 열릴 예정이다. 축구팬들로서는 집앞에서 경기를 편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재나 다름없다.

호텔을 운영하는 나는 경기가 가져다주는 열기를 더욱 실감한다. 경기가 있는 기간에는 객실 투숙률이 눈에 띄게 올라가고 주변 식당과 술집도 덩달아 바빠진다. ‘연변리그’에서는

이제 ‘동북리그’의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우리에게도 더 많은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로축구팬으로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숙한 관람 문화를 위한 조직 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그리고 먼길을 찾아온 친구들이 경기를 본 뒤 연변에서 하루밤 더 묵고 한 끼 더 먹고 거리를 한바퀴 더 둘러보고 가기를 바란다. 공 하나로 시작된 열기가 도시를 대우고 고향의 정취를 더욱 진하게 퍼워올린다. 써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 따뜻한 열기를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인민일보 해외판

감독초대석

“FA 컵은 성장의 무대... 이제 리그에 집중하겠다”



“리그에 집중하면서 좀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에게 FA 컵에서 기회를 많이 줬다.”

지난 16일, 상해새경달팀과의 축구협회컵(FA 컵) 제3라운드 원정경기를 마친 뒤 열린 소식공개회에서 연변룡정커시안팀의 이기형 감독은 이날 경기에 대해 이렇게 총

평했다.

그는 “이런 기회를 통해 선수들이 좋은 성장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FA 컵은 이제 마무리했으니 다시 리그에 집중해 좋은 성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FA 컵에 대한 감사와 총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감독은

선수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FA 컵을 우리 선수들이 기회를 얻고 또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로 생각했다.”고 전제한 뒤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진 만큼 결과가 따라주지 않아 안타깝지만 이 경험이 선수들 스스로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김기혜기자

[포커스]

FA 컵이 던진 숙제, 어떻게 풀가?



연변팀은 16일 있던 FA 컵 경기에서 후보 선수들을 대거 기용하며 새로운 얼굴들을 시험했으나 수적 우세 속에서도 끝내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1라운드 만에 탈락했다. 이제 연변은 오롯이 리그에 집중하며 리그 무대에서의 도약을 노리게 됐다.

그러나 저러니 해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다. 비록 팬들도 속으론 FA 컵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이기 승리를 바랐을 것이니 말이다.

결국 얇은 선수층이라는 팀의 고질적인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기였다. 갈길 바른 리그의 빠빠한 일정 속에 치러진 이번 FA 컵 경기에서 연변팀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그간 출전 기회가 적었던 후보 선수들을 대거 선발로 내세웠다는데 점에서 일정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였으나 경기 내내 보여준 경기력은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이는 비단 이날 경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즌 내내 연변팀을 따라다니는 ‘벤치 빈곤’이라는 고질병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주전급 선수 일부가 빠지면 전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실은 리그에서 중상위권을 노리는 팀으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다. 특히 FA 컵 대회 특성상 ‘원팀’으로 싸울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쓸 수 있는 후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확인된 경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수단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이번 FA 컵을 바라봤다는 이기형 감독의 말처럼 이날의 패배가 오히려 연변팀에는 값진 진단의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드러난 약점이 명확하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묵직한 숙제를 여름철 이적시장과 리그 후반기를 앞두고 어떻게 해결해나가는냐 하는 점이다. 이번 FA 컵 탈락은 그 방향을 잡아야 할 시점이 더욱 분명해졌음을 보여주었다.

/ 김기혜기자

[포토뉴스]

22년 만의 4강, 이제는 오스트랄리아다!

2026년 U-17 아시아컵 8강전에서 중국 U-17 남자축대표팀이 개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U-17 대표팀을 3-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5월 20일 2시 30분, 중국 U-17 대표팀은 22년 만에 4강에 복귀한 뒤 이번 대회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오른다. 상대는 웨일스를 3-0으로 완파하고 올라온 오스트랄리아팀이다. 또 한번의 기적을 향한 대표팀의 험한 발걸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 중앙방송



올해 월드컵, 집에서 볼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화제를 모았던 중재권 협의와 관련해 지난 15일 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이 2026년 미국-캐나다-메히코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중계권 범위에는 2026년 월드컵, 2030년 월드컵, 2027년 여자 월드컵, 2031년 여자월드컵이 포함된다.

한편 2026년 국제축구연맹 월드컵(미국-캐나다-메히코 월드컵)은 북경시간으로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미국, 캐나다, 메히코 세 나라에서 공동 개최된다. 이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세 나라가 공동 주최하는 대회이다. 경기는 최초로 48개 축구팀이 참여하는 새로운 경기 방식을 도입하여 104회의 멋진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2026년 월드컵 경기 일정에 따르면 개막전과 결승전은 각각 북경시간으로 6월 12일과 7월 20일 새벽 3시에 시작된다. 경기 일정의 모든 시간은 일광절약시간제가 적용된 북미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북경시간과 12시간 차이가 난다. 2026 월드컵 경기 시간은 중국에서는 대부분 새벽 또는 오전이 된다.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면 전체 조

중에 ‘꼴조’ 혹은 만만한 팀들끼리 맞붙는 조는 A, B, D 조로 보인다. 한국이 속한 A 조와 1포드 팀중 가장 약팀으로 뽑히는 캐나다가 속한 B 조, 주 개최국 미국이 속한 D 조이다.

그중 또 ‘죽음의 조’를 뽑는다면 I 조나 L 조로 보인다. I 조에는 프랑스,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 배정됐는데 포트 3 팀중 가장 강한 팀으로 여겨지는 노르웨이가 들어왔고 프랑스는 2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전을 간 팀이다. 세네갈 역시 아프리카의 강호이며 이라크도 만만치 않다.

L 조는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코로아티아 모두 강호이며 가나는 월드컵에서 늘 쉽지 않은 팀이기도 했다.

남미의 강호 브라질은 모로코, 아이피, 스코틀랜드와 한조가 돼 조 1위를 무난히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난 대회 우승팀 아르헨티나는 알제리, 오스트리아, 요르단과 한조가 됐는데 그들 역시 무난히 조 1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 북중미월드컵은 2026년 6월 12일에 메히코의 메히코시티에 있는 아스테카경기장에서 개막전을 시작해 7월 20일의 결승전은 미국 뉴저지주 뉴욕의 메트라이프스타디움에서 열리며 폐막한다.

/ 중앙방송